

외환당국·국민연금 ‘고강도 개입’… 이틀간 환율 43원 급락

구두개입·선물환 매도 동시 가동
원·달러 1480원대에서 1440원대

연말 앞두고 외환시장 수급 변화
국민연금 전략 운용 기간 연장
국내 복귀 자금 세제지원 병행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함께,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환헤지도 본격화하면서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해외로 유출됐던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발표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재료가 됐다.

◆ ‘역대급 환율’ 지속… 당국 ‘구두개입’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0.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11월 4일 이후 약 2개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 원화와 달러화가 함께 놓여 있다.

/뉴시스

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환율이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23일의 1483.6원과 비교해선 2거래일 만에 43.3원(2.92%) 내렸다. 이달 들어 일평균 1470원을 넘겨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던 환율의 상승세가 꺾였다.

이번 환율 하락은 연말을 앞두고 환율 상승을 경계한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기인했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외환시장 개장 당시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당국 입장을 시장에 전달했다. 이날 메시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을 포함했다.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1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진입해서다. 연말 환율 증가가 높으면 내년도 금융 정책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말에는 수입업체의 결제 등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하는데, 수출기업들은 헤지(자산 가치 보전)를 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도 관측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실개입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한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과 당국의 ‘전략적 환헤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자산의 10%까지 선물환(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에 확정해 두는 계약) 매도해 시장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를 예측할 수 있어 환율 상승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날 기금운용위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수시로 환헤지를 진행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 24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외환시장에 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부, ‘서약개미’ 증시 복귀 지원

정부가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던 ‘투자자금 해외 유출’을 되돌리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3일까지 기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투자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에 환헤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자산의 매각 없이도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에 선물환 거래를 통한 달러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 전문가, ‘하향 안정화’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주요한 만큼 환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주중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과 외환시장 수급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공개되며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확대됐다. 개인투자자의 복귀 시 혜택도 달러 공급 확대 기대를 자극했다”라면서 “대외 달러화 영향력이 제한된 가운데 외환 당국의 정책 발표로 환율이 140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당 1480원을 넘기며 15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은 누적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및 개입을 계기로 한 풀 꺾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러한 흐름은 내년 상반기로 이어져,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올해 4분기보다 조금 더 낮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

1965년 개교 이래 부산 시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경남정보대학교,
기술 교육·평생 교육·창업 교육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을 이끄는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

자신만만 취업프로그램

2, 3, 4학년 학위과정
35개 학과의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부울경 최다 인원 취업

더 높은 꿈으로 이끌어주는 대학

드림하이 편입프로그램

전공에 따라 8개 대학에 연계편입학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양한 특강, 단기강좌, 정규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의 요람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1977년 부산 최초로 개원한 평생교육원

세계의 청년들을
부산 경제의 동력으로 이끄는

글로벌 대학

‘정주형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유학생을 부산시민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대학과 함께하는
풍부한 해외연수!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

KIT. 경남정보대학교

RIA 투자대상 확대 검토 채권형 ETF·현금허용 논의

해외주식 매각자 국내 복귀 유도
환율 안정 목적 세제 혜택 연계
조세회피 차단 방안도 함께 검토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형 상품이나 원화 보유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자자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처럼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상황에서 증시 부양보다는 환율 안정에 먼저 무게를 뒀다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컨대 A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B 증권사의 RIA 계좌로 입금해 국내 주식을 사들여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